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하모니예술단' 공연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5월부터 매주 광주시 서구체육회 레크리에이션협회와 함께 '하모니예술단'의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20일 빛고을타운에 따르면 지난 13일 레크리에이션협회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당일 첫 공연과 함께 앞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인생 2막 노후를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첫 공연에서는 빛고을타운 회원들이 주인공이 돼 노래하며 자신의 숨은 끼를 발휘하는 '나도 가수다' 프로그램과 지역 전문 예술인으로 구성된 '하모니예술단'의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3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용덕 본부장은 "빛고을타운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연계활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구제길 이사장·김상우 대표 '행림춘만' 기부

광주세종중앙병원 구제길 이사장과 상상토건(주) 김상우 대표 이사가 전남대학교병원 환자 및 직원들의 휴게공간인 '행림춘만(杏林春滿)'을 조성해 기증했다. (사진)

지난 19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의생명연구원 뒤 휴게 공간인 '행림춘만'에서 정신 병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최명기 간호부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구제길 이사장, 김상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했다.

'행림춘만'은 살구나무 숲에 봄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구제길 이사장과 김상우 대표가 함께 조성해 전남대병원에 기증했다.

구 이사장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전남대병원에 환자와 직원들을 위한 작은 휴식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민을 위해 지역의료를 앞장서 지키고 있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에게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한국광기술원·광학회 '세계 빛의날' 행사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학회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7회 세계 빛의날 기념행사 및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사진)

세계 빛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ght)은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Theodore Mainman)이 1960년 5월16일 세계 최초로 레이저 동작에 성공한 날을 기념해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매년 지속해서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5월16일'을 세계 빛의 날로 지정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7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 학회, 연구소 등 빛(광학) 관련 각계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세계 빛의 날을 기념했다. 박소영 기자



산인공 전남서부지사-산인공 지역본부 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지난 17일 전남서부지사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안전보건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는 양 기관의 공동 목표 실현과 상호 협력 시너지 창출로 지역 고객의 서비스 질 제고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체결됐다.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안전 보건 컨설팅 △외국인근로자 마약 퇴치 관련 안전 협업 △교육·정보의 상호 교류와 사업 홍보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남서부권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현장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기독병원 '감사의 한마음 햄버거 데이'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전 직원에게 햄버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진)

지난 19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환자진료에 연일 애쓰는 직원들의 수고와 8월에 진행될 4주기 인종평가 준비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감사의 한마음, 햄버거 데이'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16일 제증역사관 앞에서 간단히 기념촬영 후 광주기독병원 전 직원과 외주 업체 직원들에게 이날부터 이틀간 오후 3시와 오후 11시에 햄버거 세트를 제공했다.

또 부서원들과 함께 즐겁게 먹는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 3팀을 선정해 부서 회식비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욱 병원장은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작은 이벤트이지만 햄버거를 먹는 동안 동료들과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여성구급대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지난 19일 화순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최근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센터에서 전남소방본부 소속 여성구급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필수 보건의료 협력 분야인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일환이며, 지역 사회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인 구급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예방 및 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소진관리 프로그램'은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원주 교수의 '번아웃의 이해',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강광순 교수의 '자연물 속의 나'를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자연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등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졌다. 노병하 기자



광주보훈병원, 로봇 전립선수술 100례 돌파 기념식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17일 병원 전립선센터 앞에서 로봇 전립선 수술 1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20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방보훈병원 최초로 '다빈치 Xi'를 활용한 로봇 수술 100례 달성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2022년 11월, 호남권 최초로 비뇨의학과에 전립선센터를 개소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비뇨기질환 환자들을 위해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복권기금 23억 원을 활용해 도입한 '다빈치 Xi' 로봇 수술기를 통해 지방보훈병원 최초로 로봇 전립선 수술을 개시했고, 불과 5개월 만에 100례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빈치 Xi는 다양한 비뇨기과 질환에 적용 가능하며, 정교한 수술로 종양 제거와 신경 및 혈관 보존이 용이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먼저 전상준 선임부장이 다빈치 로봇 수술 100례 달성에 대한 소감과 이를 위해 힘써준 비뇨의학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어 이삼용 병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병원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도 이뤄졌다.

이삼용 병원장은 "이번 100례 달성을 위해 헌신해 주신 비뇨의학과 의료진과 직원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장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에스파, '음원강자' 저력... '슈퍼노바' 음원차트 올킬

글로벌 그룹 '에스파(aespa·사진)'가 신곡 '슈퍼노바(Supernova)'로 음원강자 명성을 되찾았다.

20일 음원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에스파가 지난 13일 공개한 정규 1집 '아마겟돈(Armed & Dangerous)' 선공개곡 '슈퍼노바'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100은 물론 플로, 지니, 벅스 실시간 차트 등 피크 순위 기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 기준까지 멜론 톱100 1위를 기록 중인데 이 같은 기세라면, '음원강자' 지코가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협업한 '스팟'을 누르고 처음으로 멜론 일간차트 1위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는 누적 스트리밍 수치가 1400만 회를 돌파했다.

에스파는 2021년 '넥스트 레벨'로



음원차트를 휩쓰는 등 K팝 걸그룹 최고 음원 파워를 자랑했다. 이후 곡들은 에스파의 명성에 비해 음원차트에서 힘이 모자랐는데, '슈퍼노바'가 뒷심을 발휘하며 이 팀의 진가를 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지 리스닝 열풍이 분 가운데 고유성을 가진 쇠맛 풍의 노래로 독심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에스파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첫 정규 음반 '아마겟돈'을 발매한다. '슈퍼노바'에 이어 더블 타이틀곡 '아마겟돈'으로 활동한다. 뉴시스

악뮤, '에피소드' 세 번째 챕터... 내달 3일 컴백

남매 듀오 '악뮤(AKMU)'(이찬혁·이수현)가 컴백한다.

20일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에 '악뮤 - 컴백 포스터(AKMU - COMEBACK POSTER·사진)'를 공개하며 '악뮤가 에피소드(EPIISODE)'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를 들고 내달 3일 컴백한다"고 밝혔다. 2017년 여름을 청량하게 물들였던 '서머 에피소드(SUMMER EPISODE)', 2021년 한층 깊어진 철학적 메시지가 담긴 '넥스트 에피소드(NEXT EPISODE)'를 잇는다.

컴백과 동시에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도 예정돼 있다. 악뮤는 오는 6월15~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에서 '2024 악뮤 10주년 콘서트 [10VE]'를 개최한다. 뉴시스



오는 8월에는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서머소닉 2024'에 출격한다. 뉴시스